

**일본군'위안부'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 행동 및
제12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위안부' 범죄를 용기 있게 고발한 후,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된 수요시위가 24년 희망의 역사를 이어와 오늘 1212차에 이르렀다.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는 지난 24년 동안 피해자들의 당당한 외침으로, 인권과 평화를 염원하는 민중의 투쟁으로, 모든 전쟁을 반대하며 여성폭력 중단을 외치는 세계인들의 연대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어왔다. 2011년 12월 14일, 1000차 수요시위를 맞아 수많은 시민들의 연대와 참여를 통해 이 자리에 세워진 평화비(평화의 소녀상)는 이 정의로운 투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지난 12월 28일 한일 양국 외교장관 회담 합의는 24년이라는 세월동안 수요시위에서 외쳐 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졸속 합의와 정치적 담합으로 끝나버렸다.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자행한 군대성노예제에 대해 일본정부가 그 범죄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국가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받아들이고 이행하라는 것이 바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간 데 없고 책임 인정조차 모호한 이번 합의를 한일 양국 정부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며 타결해버렸다.

정작 피해자의 목소리는 담기지도 않은 이번 합의를 두고 한국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한 합의라고 뻔뻔한 말을 내뱉고 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피해자들의 호소는 저버린 채 합의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며 손을 놓겠다는 으름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미 일본정부는 합의 발표가 끝나기가 무섭게 이번 합의에서 말한 바가 배상이나 법적 책임이 아니라고 못 박았고, 이로써 더 이상의 사죄도 않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일본정부의 진정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합의였으니 뻔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앞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비판과 비난 자제를 약속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호도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모습 앞에 피해자들의 절망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한낱 정치적 담합으로 끝내버리려는 한일 양국정부의 협상을 피해자들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가해 행위로 규정한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하며 일본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는 피해자들과 함께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요구하는 세계연대행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한다.

이미 전국의 대학생과 시민들은 졸속적인 12.28 합의를 규탄하며 평화비 앞을 지키고 있고, 각계 각층의 양심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퍼져 나가고 있다. 해외 각지에서, 전국 각지에서 연대행동을 통해 오늘 우리의 이 선언에 함께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행동하는 나비가 되어 국내를 넘어 세계 곳곳에 이번 합의의 부당함을 알려내고, 반드시 피해

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의로운 문제해결을 위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다. 그 힘찬 결의를 담아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일 양국 정부는 12.28 졸속 합의를 바로 잡고, 피해자들의 요구에 따른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한 재협상을 즉각 실시하라.

■ 일본정부는 피해자들의 뜻을 담은 12차 아시아연대회의 제언에 따라 일본군성노예 범죄에 대한 국가적/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배상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역사교과서 기록 등 조치를 이행하라.

■ 한국정부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짓밟은 12.28 합의를 전면 재검토하고,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라.

■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올바른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행동하라.

■ 우리는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앞장서며,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적극 행동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1월 6일

**일본군'위안부'문제 정의로운 해결 세계 행동 및
제1212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